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 촛대[燭臺] - 도자 원통형 촛대

조선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불교적 전통을 배경하고 유교를 건국과 치국의 이념으로 표방한 사회였다. 이러한 이념은 자연스럽게 조선시대 전 시기의 정신 및 물질문화 속으로 스며들었고, 등잔이나 촛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전 시기 불교 전통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형태가 의식용 촛대에 나타났다면, 조선은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단아한 형태의 실용적인 촛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왕실이나 불교 사원과 같은 특수한 사회 속에서는 권위적 상징이라든가 종교적 전통의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 장식과 형태가 그대로 존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역동적인 운룡(雲龍)의 모습을 화려하게 조각한 운룡문(雲龍文) 촛대라든지 연꽃무늬의 세밀하고 화려한 도상을 조각한 연화문(蓮花文) 촛대, 가운데 부분이 불룩 나온 형태의 유려한 고복형(鼓腹形) 촛대, 마치 구슬을 꿰 듯 한 형태의 연주형(聯珠形)이나 염주형(念珠形) 촛대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형태는 오랜 불교적 전통 속에서 이어진 것으로,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져왔다. 다만, 광명대(光明臺)처럼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났던 형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사진 1

반면, 조선시대 일반적인 계층에서 사용된 형태의 등잔이나 촛대의 경우 유교적 가치를 충실히 따른 것들이 많다. 고결한 기상이 군자(君子)와 같다는 의미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등 사군자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든가 기복적(祈禱的) 의미를 담은 길상문(吉祥文)이나 글자를 넣은 형태, 혹은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고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질박한 형태의 등잔과 촛대들을 볼 수 있다. 물론 혼례나 회갑례, 제사 등 중요한 의례나 공식적인 의식(儀式)에서 사용된 촛대의 경우에는 행사의

- 사진1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9.5cm, 높이 14.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백자해태반침촛대[白磁海駝座燭臺]// 조선시대// 높이 20.5cm// 조선유적유물도감  
 사진3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8.5cm, 높이 12.8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4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2.4cm, 높이 2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5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0.7cm, 높이 26.8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품격이나 위상에 걸맞게 나름대로 멋이나 기교를 부린 화려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촛대들은 각 행사의 의미와 성격에 맞게 고안한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 촛대들은 모두 도자기로 만든 원통형 촛대이다. 촛대의 가운데 부분에 뚫린 구멍에 초를 끼우도록 되어 있다. 초는 밑초를 사용하며 원통형 초꽃이에 알맞게 꽃을 수 있도록 위쪽보다 아래쪽 부분이 가늘다. 외 촛대와 쌍 촛대, 키가 크고 작은 것, 운두가 좁고 넓은 것, 초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밑받침이 복발형(覆鉢形)인 것과 접시 또는 대접 형태 등 여러 번이의 형태가 있다. 사진 8, 9, 10의 손아귀에 잡힐 듯 한 작은 크기의 원통형 촛대는 아마 야외용이나 휴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청자 원통형 촛대의 경우 연화문을 아름답게 양각한 것으로,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수용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를 넘어 오면 사군자의 의미를 담은 대나무 마디 모양 형태로 바뀌게 된다. 불교문화에서 유교문화로 바뀐 정신세계가 물질문화에도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조선유적유물도감, 해강도자미술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 사진6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9.84cm, 높이 20.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7 백자쌍촛대[白磁雙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2.2cm~12.5cm, 높이 22.1cm~22.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8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5.2cm, 높이 5.7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9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2.7cm, 높이 4.1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10 백자촛대[白磁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9.6cm, 높이 3.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11 청자촛대[靑磁燭臺]// 고려시대// 높이 13.5cm // 해강도자미술관  
 사진12 밑초[蜜燭]// 조선시대// 밑지름 2.5~3cm, 높이 22.5~24.5cm// 온양민속박물관